

경기지부 단결 불패, 한국와이퍼에서 이어간다 텐소 자본 기획폐업 저지 투쟁 선포 ... “단가 후려친 현대차에 책임 묻겠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 지회 한국와이퍼분회가 8월 18일 오전 안산공장에서 ‘기획 청산저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한국와이퍼 투쟁선포식’ 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신차 고의 미수주로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한국와이퍼와 모회사인 텐소를 규탄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일관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책임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와이퍼는 텐소가 100% 출자한 계열사다. 현대·기아차에 와이퍼 암 블레이드를 납품한다. 한국와이퍼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2018년부터 신차에 들어갈 물량을 받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일부러 물량을 줄여 경영위기를 초래하는, 소위 ‘기획폐업’ 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보통 7년 주기로 차종 풀체인지(완전변경)를 한다. 완성차 업체가 기존 모델을 단종하고 후속 모델을 출시하면, 한국와이퍼는 그에 따라 신차 물량을 받아서 신제품을 생산해왔다.

한국와이퍼 사측은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물량을 유지해왔으나 2018년부터 이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회사가 신차 물량 수주를 받지 않아 물량이 줄었다. 이



대로 가면 3~4년 뒤에 물량이 없어 자연스럽게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텐소 자본이 안산의 정규직 공장을 없애고 다른 지역에 비정규직 공장을 세우려는 것으로 ‘근거 있는’ 의심 중이다. 텐소는 2018년 와이퍼 모터 링케이지를 생산하는 충남 홍성의 정규직 공장을 폐쇄하고 비정규직 하청공장 EHE를 세운 ‘전력’ 이 있기 때문이다.

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자동차 부품사 세계 4위, 연 매출 60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 잘나가는 일본 기업 텐소가 한국에서 외국투자 자본으로서 상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폐업을 기획하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 라고 일갈했다.

정현철 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 지역지회장은 대회사에서 “2020년 투쟁은 일단락했지만, 여전히 한국와이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라며 “텐소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외투자본들이 흔히 그러듯이 단물만 빼먹고 이윤이 줄면 노동자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 라고 규탄했다.

정현철 지회장은 “와이퍼는 자동차 필수 부품이다. 한국 와이퍼 공장들 다 적자다. 필수 부품인데 단가를 후려쳐서 생존의 위기가 왔다” 라며 “현대차 자본은 이 사태에서 비켜 갈 수 없다. 오늘 현대차로 달려간다. 우리는 너희가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라며 현대차 자본에 책임을 물었다.

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은 “단결하면 불패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경기지부는 2012년 에스제이엠에서 벌어진 야만의 노조파괴를 당당하게 막아냈다. 두원정공도 막아냈다” 라면서, “자본이 청산을 떠들지만, 이번에도 막을 수 있다. 경기지부는 동지들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투쟁 의지를 북돋웠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내 가슴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간절함이

다. 오늘 이곳에서 간절함을 확인했다” 라며 “한두 달 파업으로 임금 이 줄지언정 20년의 전망을 만들 수 있다면 눈물이 보석이 되는 투쟁이 될 것이다” 라고 투쟁에 나서는 한국와이퍼 동지들을 격려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사측은 금속노조의 견해를 똑똑히 적어 텐소에 전해라. 첫째, 이번 싸움은 그동안 금속노조가 했던 싸움과 다르다. 외투기업 구조조정 결과를 놓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방하고 준비하는 싸움이다. 재고 쌓을 생각 말고 미래 대안 정확하게 제시하라. 둘째,

부품 단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산업전환 만들어야 한다. 한국와이퍼 사장과 일본 텐소 책임자에게 위원장이 면담을 요구한다” 라고 선언했다.

노조 경기지부 각 사업장은 한국와이퍼분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분회 문선패 ‘희망횃불’ 의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투쟁선포식을 마련 분회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텐소코리아 화성공장,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본격 투쟁을 시작했다.

“현대제철 자회사는 불법파견 은폐 도구”

금속노조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 ... 현대차 자본, 자회사 강제·고용학살

금속노조와 노조 비정규지회 대표자들은 8월 17일 오후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자회사 강제·고용학살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금속노조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 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시는 이름만 바꾼 불법파견 은폐 도구다” 라고 비판했다.

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현대제철이 ‘현대제철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결했다’ 라고 발표하고 싶지만, 비정규직지회가 투쟁으로 저지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은 가진

자의 오만함으로 정규직 80% 수준의 대우를 하는 자회사 카드를 던지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다 받을 것으로 오관했다” 라고 지적했다.

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현대제철은 자회사 근로계약서에 부제소 동의 조항을 집어넣는 등 스스로 불법파견 범죄를 증명하고 있다” 라며 “자회사를 만든다고 범죄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꼬집었다.

노조와 비정규대표자들은 “금속노조는 20년 이상 벌인 불법파견 근절 투쟁을 이어가면서 불법파견 소송인단을 계속 조직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사측은 불법파견 문제

가 2020년 말부터 수면 위로 급부상하자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이나 대화 없이 지난 7월 7일 기습으로 자회사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채용을 밀어붙였다.

현대제철은 8월 31일로 자회사 모집대상 32개 중 15개 사내하청업체 2,200여 명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노조와 지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천막농성, 결의대회와 규탄 기자회견, 충남도지사 면담투쟁, 선전전 등을 벌이고 있다.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8월 18일 07시부터 8월 19일 15시까지 32간 연속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